

3월 6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3월 6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다우 6,500대로 추락 [DOW: 6,594.44pt (-4.09%)]	기대와 달리 중국이 경기부양 규모를 확대하지 않을 것이란 소식으로 매물을 불러왔고, 이날도 어김없이 쏟아진 부진한 경기지표들은 투자심리를 냉각시켰음. 무디스가 JP모간체이스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조정하고, 제너럴 모터스(GM)의 회계법인이 GM의 생존 가능성에 의구심을 표명한 점도 악재로 작용했음.
은행주 급락	다우 지수 구성종목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씨티그룹, JP모간체이스가 10% 이상 급락했고, 대형 은행인 웰스파코 은행도 16% 가까이 폭락했음. 이중 씨티그룹은 국유화 우려감으로 주가가 장중 한 때 상장 이후 처음으로 1달러를 하회하기도 했으며, JP모간체이스와 웰스파코는 무디스발 악재가 영향을 미쳤음.
GM 회계법인 "생존 의구심"...	GM의 회계법인 딜로이트앤투쉬(Deloitte & Touche)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GM의 지속적인 생존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한 점이 악재로 반영되어 제너럴 모터스(GM)의 주가가 장중 17%나 급락했음. 딜로이트는 "GM의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고, 채무 이행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현금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GM이 '계속기업(going concern)'을 유지할 능력에 상당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밝혔음.
월마트 강세	세계 최대 할인 유통체인인 월마트는 2월 판매실적이 전년비 5.1% 증가한데다 월가의 예상치를 상회한 점이 호재로 작용하여 2%대의 오름세를 보였음. 반면 월마트의 경쟁사인 타깃(Target)은 2월 판매가 4.1% 감소한 점이 부담이 돼 3% 넘게 떨어졌음. 또 애완용품 유통체인인 펫스마트(PETsMART)는 올 순이익 전망치가 기대치를 밑돌았다는 평가로 7% 넘게 하락했음.
국제유가 하락 [WTI: \$43.61 (-\$1.77)]	원자바오 총리가 5일 개막된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경기부양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내놓지 않은 점이 악재로 작용하였고, 골드만삭스가 글로벌 리세션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밝힌 점도 원유시장의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어 국제유가는 약 3.9% 하락하였음.
부진한 경기지표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5주 연속 60만명을 상회하며 고용불안을 고조시켰고, 6개월째 감소한 공장주문과 1년만에 하락 반전한 기업들의 생산성은 미 제조업의 어려움을 대변했음. 미 노동부가 발표한 작년 4분기 비농업부문 생산성은 연율로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같은 생산성 하락은 1년만에 처음임.

제목	주요 내용
中 부양책 실행에 선물 하락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 업무보고를 통해 "중국 정부가 적절한 정책과 조치를 취한다면 중국 경제는 8%의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재정지출을 대폭 늘려 재정적자를 9,500억위안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 원 총리는 관심을 모았던 추가 경기부양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음. 시장은 원 총리의 8% 성장 확신 발언을 중국 정부가 현재 추가 경기부양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
BOJ, 회사채 매입 확대할 듯	일본은행(BOJ)가 회사채 매입을 확대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6일 보도. 야마구치 히로히데 BOJ 부총재는 전일 도쿄에서 "일본 중앙은행은 침체 심화에 따른 신용경색을 막기 위해 회사채 구입을 늘려야 할 것"이라며 "향후 기업 자금 확충은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고 언급.
트리셰 "추가 금리인하 여지 충분"	트리셰 총재는 5일 통화정책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1.5%를 최저금리로 여기지 않는다면 ECB가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 ECB는 이날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의 2%에서 1.5%로 50bp 인하.
유럽 은행, 동구 부실로 500억불 더 필요	유럽의 주요 은행들이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부실 여신으로 인해 내년까지 500억달러의 추가 자본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 J.P모건은 5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자사의 분석대상 32개 유럽 은행들이 320억-400억 유로의 자본금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밝혀.
반토막 수출기업 이익 3Q까지 감소	5일 여러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2009년 상장사들의 영업이익 증감율을 조사한 결과 분석 대상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최대 9%까지 감소할 것으로 집계됨. 분기별로는 1분기에 이익 감소가 가장 크고 하반기로 갈수록 감소율이 점차 줄어들어 흑자전환하거나 증가추세로 바뀔 전망. 특히 올해 수출기업의 영업이익 감소율은 전체보다 더 클 것으로 나타났음. 굿모닝신한증권은 "전체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9% 감소하겠지만 수출기업은 43.6%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2월 부도 건설업체, 전 달보다 47.8% 줄어	올해 초 증가하던 부도 건설업체 수가 지난달에 눈에 띄게 줄었음. 5일 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부도 건설사는 총 24개사로 지난해 같은 달 28개사에 비해 14.3% 줄었음. 올해 1월의 46개사에 비해서도 47.8%가 감소. 이 같은 결과는 C등급 건설사에 대한 워크아웃 작업이 시작됐고, 정부가 공공공사 발주를 늘리면서 선급금이 지급돼 업체 현금 유동성이 개선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정부, 공기업 해외채권 발행 독려 나섰다	4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일(6일) 한국전력, 가스공사등 18개 공기업의 자금담당 임원들을 불러 해외채권 발행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 정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외화유동성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서 공기업들의 해외 차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기획재정부가 최근 18개 공기업에서 올해 해외 차입 계획을 보고받은 결과, 전체 규모는 100억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짐.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